십자가복음의 의미 안에 들어있는 0과 1이라는 디지털 기호를 코드로 성경 말씀을 풀어내는 태승철의 오늘의 번제 <부모 공경은 뭐고 생명은 왜 길까?>의 줄거리 :

하나님은 마음으로 만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고 다른 대상을 좋아하여 얼룩과 자국과 흔적이 생긴 마음으로는 못 만납니다. 십자가 보혈로 하얀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사람은 육체로 만납니다. 이렇게 육체로 만나는 첫 번째 대상이 바로 부모이지요. 그러므로 부모에 대해 관계하는 방식은 이후 모든 사람에 대한 관계 방식을 근본적으로 결정짓습니다. 그렇기에 부모 공경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잘 이루어지면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생명이 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됩니다. 부모 공경과 긴 생명의 연관성을 살펴봅니다.

부모 공경은 뭐고 생명은 왜 길까?

(출애굽기 20:12)

12.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앞서 본 네 가지 계명은 하나님과의 연합과 만남을 핵심으로 합니다. 제5계명부터는 우리가 육체로 사는 세상에서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주시는 계명이 바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생명이 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공경해야 할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다면 어떨까요? 부모 공경이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는 왜 부모 공경과 생명을 연관하셨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네 가지 계명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로부터 이어지는 제5계명인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앞서 등장한 네 가지 계명을 지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계명과 개별적으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네 가지 계명이 온전히 지켜지는 중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

하신 것입니다. 사실 네 가지 계명이 온전히 지켜진다면 따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없어도 부모를 공경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굳이 이러한 계명을 주신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면 하나님에 대한 네 가지 계명이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알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서 좋아함이 하나님을 빗나갈 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인간이 마음에서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빗나가서 다른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빗나감의 죄입니다. 하나님 말고 세상에 있는 것을 좋아하면 마음은 얼룩집니다. 얼룩진 마음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네 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얀 마음으로만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볼 때 제5계명인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마음 상태를 알려주는 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다면 마음이 얼룩지고 더럽혀져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상태이기에 앞선 네 계명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음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5계명을 이해함에 있어서 먼저 부모 공경이 무엇인지에 대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모 공경을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에게 있어서 부모 공경이란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효도의 개념과 같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여 생활화하지 않는다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부모 공경일 수 없습니다. 부모님께서 '너는 너무 종교적 관심에만 심취해 있으므로 삶이 잘못돼 있다. 십자가 생활화라는 것을 멈춰라.'라고 말씀하신다면 제5계명을 지키기 위해 그 말에 따라야 할까요?

성경이 말하는 부모 공경이란 공경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관점에서 잘 연구해서 실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덕으로써 강조되는 효도나 순종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며, 부모님의 노년을 재정적으로 책임지겠다는 갸륵한 결심을 하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수님께서 부모 공경에 대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떠올려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34~37절을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보편적 윤리강령과는 매우 동떨어져 있습니다. 삼강오륜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부위자강(父爲子綱)과 부자유친(父子有親)을 이야기 합니다. 부위자강은 어버이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어버이를 공경해야 한다는 뜻이고, 부자유친이란 어버이와 자녀 간에는 친밀함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러한 유교에서 말하는 전통적 효도와는 무관합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또한 사회적 관습과 민족적 전통이 말하는 혈연관계에 대한 통속적 상식을 강조하는 계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모 공경은 마음에서 부모의 흔적과 얼룩을 완전히 지워서라도 하얀 마음을 만드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하얀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비로소 가능해지는 일이 부모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통해 부모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부모님을 향해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일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로부터 성경이 말하는 부모 공경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려다보시는 가운데 내가 부모님에게 하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이라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계심을 염두에 두고 내가 부모님에 대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을 지으셨고 나도 지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부모님의 삶을 이끄시고 나의 삶도 이끌고 계십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부모 공경이란 부모님에 대해 하나님 마음에 드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마음에 드는 말과 행동을 하더라도 부모님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일을 했기에 이것은 부모 공경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말에 부모님이 발끈하며 화를 내셨다면 그것은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그것까지 내가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모 공경이란 하나님 마음에 들게 부모님과 관계하는 것입니다. 부모님 마음에 들게 관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부모님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자니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앞선 네 계명을 지켜내야 합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좋아하는 마음을 발동시킬 때 다른 신을 섬기게 됩니다. 이때 마음은 얼룩지고 흔적이 남고 더러워집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의 보혈로

이렇게 더러워진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입고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마주하여 연합하는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는 중에 부모님을 마주할 때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말과 행동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말과 행동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을 때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 스스로 하나님 마음에 드는 말과 행동을 만들어 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그대로 하셨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만을 들으시며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부모 공경의 대원칙입니다. 이것을 벗어난 부모 공경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마음에 들어온다면 어떤 방법을 써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부모를 공경할 수는 없습니다. 진정으로 부모 공경을 하고 싶다면 먼저 부모님의 흔적을 마음에서 지워야만 합니다. 하얀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과 연합해야만 하나님으로부터 부모님을 향한 말과 행동을 지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부모님에 대한 생각과 결정과 의지 등이 떠오를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효도의 최상위 단계는 하얀 마음으로 하나님 만남을 유지하기입니다. 십자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얀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야말로 부모님을 위한 최상위의 효도 단계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을 달리 표현하자면 ‘부모를 만날 때면 반드시 하나님인 나를 먼저 만나야 한다. 그럴 때 너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넣어주는 나의 아이디어를 따라서 부모를 관계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지시를 들을 수 있으려면 십자가의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얀 마음이 되어야만 합니다. 구약에서는 아침저녁으로 어린양을 바치는 상번제의 생활화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연합은 이루어집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이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로 제시된 계명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적 뜻에 따라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태어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나의 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영이 입을 옷인 육체를 부모님을 통해 만들어 주셨습니다. 부모님은 육체를 통해 만나는 첫 번째 대상입니다. 부모님과의 만남 이후에 형제자매를 비롯한 다른 가족들을 만나고 다른 사람들과도 만남을 갖게 됩니다. 부모 공경은 이제부터 내가 육체로 만나고 관계해야 될 모든 사람들에 대한 관계 방식을 결정하게 됩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는 육체로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 중에 첫 번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첫 번째 관계의 방식을 공경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공경의 방식은 지금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면 하나님이 실시간으로 주시는 말씀도 들을 수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부모 공경이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드는 방식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 공경에 대해 순종, 사랑, 존경과 같은 막연한 개념을 떠올리지만 성경이 말하는 부모 공경의 방식은 무척 분명합니다. 앞선 네 가지 계명이 지켜지는 가운데 하나님과 하얀 마음으로 연합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부모에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내가 부모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공경은 위대하신 하나님 마음에 드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공자의 가르침이나 전통적 효도의 미덕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혈연관계에 대한 사회적 통념이나 관습이 지시하는 바대로 하는 것이 진정한 부모 공경일 수 없습니다. 부모님은 내가 첫 번째로 만나서 관계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부모님이라는 첫 번째 관계를 하나님과 연합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기 위해 하나님의 지시를 따랐다면 이것은 다른 모든 관계로 이어져 나가게 됩니다. 부모 다음에는 형제자매의 관계가 있을 것이고, 조부모나 친척들에 대한 관계가 있을 것이고, 이웃들에 대한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 앞에서 제시된 네 가지 계명이 제대로 지켜졌다면 부모 공경은 이웃 공경으로 발전되어 나가게 됩니다. 이웃에 대한 공경을 다른 말로 하자면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의 습득은 부모님에 대한 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방식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들이 내게 무조건 우호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라고 말씀하셨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먼저 사랑함이 곧 하나님을 먼저 사랑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서야 부모에 대해서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만나는 대상인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있다면, 그 관계의 방식으로 모든 사람을 관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 대해서든, 친구에 대해

서든, 애인에 대해서든, 원수에 대해서든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대로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우선 네 가지 계명이 지켜지도록 하얀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에 달렸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야 할 공경과 사랑이란 하나님의 지시를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게 말하고 행동함이야말로 공경의 기준입니다. 그저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해드리고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공경이 아닙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데 부모님이 싫어하신다면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에 담긴 취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방식으로 부모님에게 말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붙잡고 하얀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지시를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좋음에 대한 열망으로 마음이 가득 차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더라도 하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 뒤에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모 공경과 생명이 길어지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이 말씀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이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약속의 땅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은 부모님을 선택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육체를 입고 세상에 태어납니다. 부모님의 형편이 내가 태어난 육체의 형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이 있듯이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왕궁 같은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어진 환경과는 상관없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계획하신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내게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자발적이고 창조적으로 보시기에 좋도록 모든 사람을 위해 계획하신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이 약속의 땅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육체를 입고 사는 나에게 허락하시려는 보시기에 좋은 삶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님에게서 태어나 어린 시절에 어떤 환경에서 자랐느냐는 상관이 없습니다. 개천 같은

환경에서 태어났더라도 왕으로 세우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삶의 모습으로 들어와서 사는 시간은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창조적이고 자발적인 보시기에 좋은 삶의 모습 안으로 아예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이라는 단서를 붙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는 시내산에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꿈꾸신 나에게 해당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기준에서 획일화하여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이든지 그것이 나를 위해 계획하신 일이라면 젖과 꿀이 흐르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와 사는 시간이 단명하다 못해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산다는 것은 결국 사람을 관계하는 것입니다. 좀 더 확장하자면 문제나 과제에 대한 관계, 물건에 대한 관계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육체로 사는 동안 만나는 모든 관계들이 모여서 삶을 이룹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관계에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방식의 말과 행동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부모 공경은 육체로 만난 첫 번째 대상에 대한 하나님 마음에 드는 방식의 관계입니다. 이것을 익혔다면 하얀 마음으로 하나님과 연합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람이나 문제를 관계할 수 있습니다. 그 관계들이 모여서 삶을 이루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창조적이고 자발적으로 계획하셨던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계획하신 삶으로 들어와서 사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이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라는 말씀에 담긴 핵심적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33년의 생애를 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유년 시절이 어땠을지 예상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12살 때부터 성전에서 랍비들과 대화하셨던 것을 염두에 두자면 어린 시절부터 이미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33년 생애는 세상 기준에서 볼 때는 요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전에 예수님의 하루하루를 모두 계획하셨습니다. 누구를 만나게 될 것도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이 내려다보시는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드는 방식으로 말하고 행동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는 물리적인 시간으로는 33년을 사셨지만 영적

으로 말하면 그 생명이 어마어마하게 길었습니다. 100세를 살았더라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았다면 아무리 많은 사람과 관계하고 사건과 대상들과 관계했을지라도 생명이 아예 없는 것입니다. 살았다고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모님을 통해 육체를 입고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 뜻입니다. 사람은 첫 번째로 부모님과 관계합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이유는 네 가지 계명이 얼마나 잘 지켜졌는가를 전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얀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남이 유지된다면 육체로 만나는 첫 번째 관계인 부모님에게서 사람이든 사물이든 모든 대상을 관계하는 방식을 터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터득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의 방식을 다른 관계에 적용한다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삶에 들어와 사는 시간은 엄청 길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몇 살까지 살지를 정해두셨습니다. 그러나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는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물리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겠다.’라고 스스로 약속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 사는 시간은 육체가 죽기까지의 물리적 시간과는 별개입니다. 육체가 죽는 시간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물리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사는 시간은 나에게 달렸습니다. 앞의 네 계명을 지키기 위해 십자가 생활화를 얼마나 충실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은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생명 자체는 기쁨입니다. 에덴의 삶이 곧 생명입니다.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라는 말씀을 풀어보자면 ‘회복된 에덴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라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체로 만나는 첫 번째 부모와의 관계에서 앞선 네 가지 계명이 지켜지고 있는가를 충분히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모든 사람과 모든 문제와 모든 사물과의 관계에서 채워지는 삶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창조적이고 자발적으로 정해두신 약속의 땅이고, 그 약속의 땅에서 사는 시간이 길게 길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단순히 부모의 마음에 맞게 말하고 행동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모님도 지으시고 나도 지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하나님 마음에 들게

부모님을 상대함이 부모 공경입니다. 이 관계가 잘 습득되면 두 번째 세 번째로 사람을 만나고 문제를 만날 때마다 네 가지 계명이 지켜지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연합이 예수님 안에서 실시간으로 지속되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영적이고 질적인 삶의 시간은 풍부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리적으로 정해진 시간은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그 시간 동안 영적이고 질적인 생명의 시간은 최대한 길게 길게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네 가지 계명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제로 하여 첫 번째로 상대하게 되는 부모님과의 관계를 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마음에 들게 말하고 행동하는 관계의 법칙을 습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부모님에게 대하듯 사람을 대하는 공경의 방식을 체득함으로써 같은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